

지역 소식통



부안오복마실축제 퍼레이드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부안군이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의 개막식 프로그램인 '복 받는 날 퍼레이드'에 참여할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부안군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일 주일 간 관내 학교를 방문해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등교시간에 맞춰 방문해 복받는 날 퍼레이드 중 오색 천연 퍼레이드에 참여할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을 중점 홍보했다.

자원봉사자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부안군청 기획감사실 군민디자인 T/F팀(☎ 063-580-4646~4647)로 전화 신청 및 학교 단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오는 5월 4일 개막 프로그램 복받는 날 퍼레이드 중 오색천을 들고 입장하는 오색 천연 퍼레이드에 참여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소성면, 인구늘리기 간담회

정읍 소성면(면장 오현종)은 지난 10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이장 및 기관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소성면에서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대책의 개선방향과 신규 시책 발굴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오현종 소성면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를 늘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는 세수증대 및 국비지원증액과 연계되고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정읍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마을의 실제 거주자이면서 미전입자들이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성면 인구 감소의 제일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일꾼을 끌어들이는 게 중요한 목표로 앞으로 소성면에서 추진되는 소성식품특화단지과 최첨단 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이 인구증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를 모았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방안을 지역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으로 발굴하여 인구감소 대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 벚꽃축제 '성료'

상춘객 20만여명 다녀가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과 벚꽃로 일원에서 열린 '2017 정읍 벚꽃축제'가 6일 동안의 다채로운 행사를 모두 마치고 종료됐다.

7일부터 12일까지 전라예술제와 자생화 전시회, 자생차 페스티벌과 함께 한 이번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 20만여명이 찾아와 봄의 향연을 즐겼다. 벚꽃 개화시기가 축제 기간과 맞아 떨어지는데다 완연한 봄날씨로 상춘객이 몰려 축제분위기가 한층 살아났다.

벚꽃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주말 기간에만 15만여명이 축제장을 찾아 발디딤틈 없을 정도로 붐볐으며, 색고을 시장 및 인근 시내 상권도 간만에 활기를 찾아 야시장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상권과 함께 상생한다는 시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벚꽃이 내리는 정읍 벚꽃향연 물들다'라는 주제로 시에서 직접 주관한 이번 축제는 공예체험, 전통놀이, 떡메치기 등 각종 체험부스, 한과 음료 등 간식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면서도 시민 및 관광객과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벚꽃로와 서부산업도로 일원에서는 공연장을 벗어나 밖으로 나온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버블쇼, 풍선미술, 석고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벚꽃과 어울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민선 6기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완료 10건 · 정상추진 22건 등 공약사업 '순항'

고창군이 민선 6기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의 비전을 제시하고 △생활복지 실현 △문화관광 기반구축 △명품 농어촌 건설의 3대 목표에 따라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23개 사업 32개 세부사업을 분류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개 사업은 조기 완료했고, 나머지 22개 사업도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 중 무료예방접종, 오지마을 버스노선 36개 마을 확대 증편으로 지난해 2만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성과

를 올렸다. 아울러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기 등 60종 554대 임대 및 미생물농업 확대 시행으로 영농경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이밖에도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생활복지 실현하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와 6차 산업지구 조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비롯해 읍면 마을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베리팜영농조합법인-전주제과, 협약 체결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13일 베리팜영농조합법인과 (주)전주제과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구소는 '복분자 초코파이'를 개발해 고창 베리팜영농조합법인에 기술이전 한 바 있으며 두 기관이 협력해 만든 복분자 초코파이는 새롭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뤄 소비자가 먹기 좋

게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개발제품의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존에 기술이전된 '복분자 초코파이'를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공급받고 제품 홍보마케팅 강화와 기관 간 공동 사업 발전과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고창의 특화제품인 복분자를 이용한 제품개발로 복분자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창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했으며, 베리류 뿐만 아니라 고창의 다양한 특화자료를 소재로 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소남 전진희 작가 민화전 '봄·색·땀'

다음달 10일까지 부안군청 민원실서

'봄·색·땀'이란 주제로 소남 전진희 작가의 민화전이 부안군청 민원실 로비에서 개최된다.

소남 전진희 작가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주 한국전통문헌장에서 성황리에 전시를 마치고 이어 부안군청 민원실 로비에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2차 전시회이다.

전시회에서는 한 땀 한 땀 화려한 색채로 수를 놓은 듯한 모란도 10폭 병풍 글과 어우러진 섬세하면서도 수수한 연화도 수묵화 8폭 병풍 따뜻한 봄을 일리는 매화·목련·모란꽃의 화려함과 그 꽃들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새들을 그린 여러 작품의 화조도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문 자도는 화려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소남 전진희 작가는 부안에서 활동하는 서예가이자 민화작가로 여

러 공모전에서 서예와 민화 부문에서 수차례 수상을 했으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금강산도 10폭 병풍으로 한국민화협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 있는 작가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한국적 미의 특색을 지닌 민화 작품을 통해 군민들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실 로비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휴식공간인 문화갤러리로 탈바꿈한 만큼 민원공무원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가가 돼 민원인 응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종규 군수는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을 생활화하는 엘리트 공직자가 돼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보건소,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 캠페인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과 벚꽃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7 정읍 벚꽃축제'행사에서 11일 오후에, 정읍시민의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국가 암검진 사업을 일리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정읍시는 연 2회이상 전라북도 지역 암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주관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여 암검진 안내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상용 정읍시 보건소장은 "많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의 질환으로 평생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으며, 암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해당 검진 연도에 반드시 암검진을 받으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암검진 대상자는 흡수년도 출생자중 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녀,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이다.

무료 암검진으로 발견된 신규 암환자중 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최고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최고 200만원(급여 본인부담금)까지 발생년도부터 3년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수검으로 인하여 차후 암진단시 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꼭 무료 암검진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민생지원팀(53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